

‘오이’ · ‘블루베리’ 작년 최고소득 농산물

각각 시설·노지재배서 가장 소득 높은 것으로 조사돼
“신선식품 구매 감소 등으로 평균 소득을 전년보다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19년에 생산한 119개 작물, 5,300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국·가승인통계 49개 작물(쌀, 콩, 축산물 등 일부 제외)에 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설과수 재배농가는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고, 노지 채소 재배농가는 소득 증가, 화훼·특용약용 재배농가는 소득 감소, 식량작물·시설채소·노지과수 재배농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a(1,000㎡)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은 시설오이(축성)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1,213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작물은 시설장미(1,036만원), 축성토마토(975만 원)였으며, 노지작물 중에서는 블루베리(497만원), 포도(465만원), 참다래(314만원) 등 과수가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파프리카와 토마토(반축성)는 최근 3년 소득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식량작물인 쌀보리(24만원), 밀(16만원), 결보리(15만원) 등은 비교적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당 소득은 쌀보리(5만1,000원/시간), 가을배추(3만4,000원), 밀(3만2,000원), 생강(2만7,000원) 등 식량작물 및 노지채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증가한 작물은 15개이고, 감소한 작물은 34개로 분석됐다.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작물은 축성토마토(28.8%), 블루베리(23.0%) 등이었다.

축성토마토는 정식(아주심기)기에 태풍과 늦더위로 초기 수확량이 부족했으나, 겨울철 풍부한 일조량으로 단수가 증가(8.0%)하고 맛과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16.2%)해 소득도 28.8% 증가했다.

블루베리는 작황호조로 단수가 4.1% 증가하고, 친환경(유기·무농약) 재배

증가로 직거래를 통한 가격이 상승(5.0%)해 소득도 23.6%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작물은 시설호박(-44.2%), 노지감귤(-30.8%) 등이었다. 시설호박은 생육초기 작황호조로 단수가 증가(2.4%)하고, 재배면적이 증가(5.3%)해 총 생산량이 늘었으나, 품위 저하(장마철 일조량 감소)로 가격이 하락(23.5%)해 소득이 44.2% 감소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연구 개발은 물론, 농가 상담이나 농업정책 의사 결정, 영농손실 보상 등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간행물 ‘2019년 농축산물소득조사자료집’으로 발간되었고,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과 농업경영정보시스템(arnis.rda.go.kr)에서 볼 수 있다.

농산경영정보 우수군 과장은 “2019년은 전년 따뜻한 겨울과 수확기 잦은 태풍 등으로 수량 변화가 많았다. 신선식품 구매 감소 등 소비침체도 농가 경영 여건이 어려워 49개 작물 평균 소득을(45.7%)이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며 “농가에서는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고, 상품화를 제고 및 비용 절감 등 경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아T)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4만4,000원, 대형유통업체는 34만2,000원으로 전주대비 각각 2.1%,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추석 차례상에 쓰일 물건들이 진열된 어느 마트의 모습.

추석 일주일 전, 올해 차례상 차림비용

전통시장 24만4000원 · 대형유통업체 34만2000원

전주대비 각각 2.1% · 0.2% ↑
“날씨 문제로 성수품 수급 우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아T, 사장 이병호)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4만4,000원, 대형유통업체는 34만2,000원으로 전주대비 각각 2.1%,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모두 각각 8.2%, 9.1%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아T가 지난 9월과 16일에 이어 23일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결과다.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지난 주와 비교하면, 작황부진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추와 원황에서 신고로 주력품종이 교체된 배 가격이 상승했고, 밤·대추 등 임산물은 햇품 및 정부 보유물량의 집중출하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쇠고기는 보합세를 유지했

다.

한편 정부는 명절수요가 몰리는 과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대를 다양화한 선물세트를 구성해 농협, 축협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큰 장마와 태풍 등의 피해로 삼성이 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우리 농축산물로 명절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아T 이기우 수급이사는 “올해는 날씨 탓에 농산물 작황이 부진해 추석성수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민·관합동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을 통해 주요 성수품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의 차림비용 관련정보는 아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장터 정보는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서민금융 지원 ‘성실상환우대론12’ 출시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신상품 ‘성실상환우대론12’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 상품을 대체해 주는 것으로 지원규모는 개인당 최대 1,400만원이며, 전북은행 햇살론17 이용고객 중 최근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연단위로 취급한다. 금리가 17.9%인 햇살론17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자비용을 약 1/3 가량 인하해 최고 연 12.1% (2020.08.26.기준)를 적용함으로써 5%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이를 통해 전북은행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531명의 고객에게 약 24억원 가량을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문 인력 교류 ‘새다리 놓다’

전기안전공사, LX와 인사 교류 · 협력 약정 체결
빈집 정비사업 위한 협력 약정도 함께 맺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전북혁신도시 이웃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문 인력 교류의 새 다리를 놓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는 23일 국토정보공사(이하 LX) 본사에서 조성완 사장과 LX 김정렬 사장 등 양 기관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인사교류 강화와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기관간 전문인력을 일정기간 상호 파견근무로써 협력이 필요한 사업 부분의 실행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우선, 인사 교류 형태와 기관별 인사관리 규정부터 개정해

협력의 틀을 닦고 세부 시행방안 등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전문 인력을 상호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기간은 약 1년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소속기관이 검증해 선발하며, 업무 수행 후에는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조성완 사장은 이날 협약에서 “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은 조직의 사업 역량과 개방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두 기관의 경험 많은 인재들이 국민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더 크게 이바지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날 인사교류와 더불어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협력 약정도 함께 맺었다. 최근 LX가 지역사회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GIS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펼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에 공사가 갖고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전국 2,300만여 호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점검 결과자료 가운데 전력폐지 고객이나 누설 전류값이 0인 주택들을 추출해 제공함으로써 빈집 여부를 보다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3일 국토정보공사(이하 LX) 본사에서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과 김정렬 LX 사장 등 양 기관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인사교류 강화와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김윤상 기자

‘LX 드론활용센터’ 남원 유치 확정

구 주생비행장 부지에 조성

남원시는 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추진하는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LX드론활용센터 유치 공모를 추진했으며, 총 7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해 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남원시는 LX드론활용센터 유치를 위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공모에 적극 대응했으며, 지난 23일 2차(현장)평가 결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제안 부지인 구 주생비행장은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상황에서 지리산 공비특별 작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

실상 그 역할이 마무리됐음에도 남원시로 이전되지 못했다.

특히, 비행장 부지는 각종 규제 얽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이환주 시장과 주생 중동마을 주민들은 2013년 국방부와 주생비행장 폐쇄를 위한 조정회의를 추진한, 이후 군부대 헬기장 대체부지 및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국방부에서 남원시로 관리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수해피해로 지역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LX드론활용센터를 유치하게 되었다”며, 유치를 위해 노력한 직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8월 전북수출 4억2천여만 달러

전북 주력업종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에 24일 발표한 8월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4억2,097만 달러, 수입은 3억2,184만 달러로 집계됐다.

8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4.3% 감소한 수치이다.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업종의 수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다량히 농산가공품, 반도체, 식물성물질, 패션잡화 등은 수출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으로 집계된 정밀화학원료가 전년동월비 32.6% 감소한 3,953만 달러에 그치는 등 자동차(3,445만 달러, -16.8%), 합성수지(3,357만 달러, -8.7%), 건설광산기계(2,096만 달러, -22.3%) 등의 수출이 회복되지 못했다.

혁신시제품 시범 테스트

조달청, 전주시 · 전북대 등 도내 8개 수행기관 선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20년도 제2차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사업 테스트 기관 매칭 공모 결과 도내 8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개 기관에서 대폭 확대된 결과다.

혁신시제품 테스트 사업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시제품을 조달청 자체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 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사용한 후 테스트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2차 혁신시제품 테스트 기관은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전북교육청

지방자치단체 4개 기관과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4개 기관 등 총 8개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는 도내 소재 업체인 유한회사 청정나라의 ‘응급 시 휴대용 석면비산방지표면경화제’ 제품의 테스트에 나선다.

이주현 청장은 “이번 혁신시제품 테스트 사업에 선정된 전북지역 기관들의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혁신기업들의 혁신시제품 상용화 및 초기 판로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벤처·창업기업과 공공기관의 혁신시제품 테스트 사업에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 발급 가까운 곳에서’

농관원 전북지원 ‘읍면동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완주군 운주면 피곡마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집에서 50km 떨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까지 1시간을 운전해 가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약 12km 떨어진 운주면사무소에 가서 15분 만에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지난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의 발급이 가까운 읍·면·동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 확대 발급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활용한 것으로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본인확인 및 발급신청서 제출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등 2종이 가능하다.

정수경 전북지원장은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 발급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금전적·시간적 이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장례식장 일회용품 과다 배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례식장 일회용품 배출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장례식장 이용 전주 시민 574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10일간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례식장 이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0.6%로 확인됐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시 용기(그릇)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를 쓴 적 없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고, 감염병 예방의 영향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68.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례식장 식사제공 1회용 그릇에 대해 ‘쓰레기가 많아서 부담된다’는 응답 또한 40.5%로 높게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